

# 화순군, 관광 대표 슬로건 '군민 선호도' 조사

창의적·함축적 표현으로 브랜드 가치 높이고 관광 활성화 이바지

1511개 접수 11개 대상 선정...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화순군이 19일부터 31일까지 관광 대표 슬로건 선정을 위한 군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광 화순을 창의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관광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 기간 동안 총 1511개의 슬로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슬

로건을 대상으로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11개의 선호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선호도 조사 참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선호도 조사 용지의 슬로건을 확인한 후

선호하는 슬로건 문안에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화순 관광 슬로건 공모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참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순 관광을 대표하는 슬로건 선정 과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관광 대표 슬로건 최종 결과는 군민 선호도 조사 후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점에 100만 원, 우수상 2점에 각각 50만 원, 장려상 2점에 각각 2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문안은 화순 관광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리플릿, 포스터, 홍보 영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전국에서 들어온 후원물품 수해 복구에 힘

곡성군은 곳곳에서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이 이어지며 수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랜드복지재단은 곡성군에 수천 벌의 의류 등을 기부하며 지역민의 아픔에 함께했다. 기부한 물품은 운동복 1,200벌, 민소매티 1,800벌, 양말 3,600켤레, 남녀 속옷 2,282벌, 여름용 샌들 1,200켤레, 이불 1,200채로 알려진다. 물난리를 피하느라 옷가지도 챙기지 못했던 수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아프리카-중동 한인한상 총연합회(회장 김점배)에서는 2,000여 만원을 들여 10인용 전기압력밥솥 130개를 후원했다. 아프리카-중동 한인한상 총연합회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한인회와 한인 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6년 출범한 단체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중 이번 물난리 소식을 듣고 후원을 결심했다. 특히 이번 기부물품은 전현직 한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금액으로 구매해 더욱 뜻깊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주)진생글로벌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사에서 생산한 황칠 수제비누 1,170개를 후원한 것이다.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황칠을 원료로 만든 DPX 황치루제비누는 해독작용 및 피부소독 등의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밖에도 익명 기부 등 전국 각지에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 장성군 '축제 줄줄이 취소'

### 예산 전액 수해복구 투입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백양단풍축제도 취소

장성군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해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 올 가을과 겨울 개최할 예정이던 3가지 축제를 줄줄이 취소했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예정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축령산 편백산소축제'에 이어 11월 예정된 '백양단풍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취소된 축제 예산은 전액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투입해 비 피해도 고통 받는 주민과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계획이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은 만큼 장성군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가을 꽃축제로 발돋움 했다.

황룡강 일원을 수놓은 10억 송이 가을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긴 꽃강'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앞당겨 축제 취소를 결정하고 감염병 대응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성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를 취소했다.

## 구례군, 수해지역 농업기계 긴급수리반 편성 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합동 수리반 침수 기계 수리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내린 폭우로 침수된 구례읍 등 5개 읍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 수리업체 등과 합동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14개반 28명으로 수리반을 구성하여 수리에

나섰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농작물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방제가 시급한 실정이며, 8월 중순부터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를 파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농업기계 수리를 지원해 농가의 시름

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구례군은 18일부터 농경지 침수가 심각한 문척면 6개 마을을 시작으로 5개 읍면 9개마을을 긴급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반은 피해 농업기계의 무상 점검과 소액부품 무료 교체 등을 지원하며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업체로 옮겨 수리할 있도록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수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침수된 농업기계가 있는 농가에선 절대 수리 전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세척 후 전문 정비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담양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담양군이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내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11개 기업과 19명의 청년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담양군 풀뿌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정 시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침수 농기계 피해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받으세요

집중호우로 농기계 피해 커...보험 안내 및 가입 독려

나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 손해 보상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안내 및 가입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용동력운반차 △농용용로우터 까지 총 12개 기종이다.

신청방법은 보험 가입 농협을 방문해 피해내역을 접수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관내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1년이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 3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총 8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 총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